

# '전북 사회적경제박람회 IN 전주' 성료

전주 객리단길 일원 야외무대에서 개최, 도내 52개 기업 참여... 유공자 표창 수여식 진행·부대행사 마련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한 사회적경제 민·관 협력의 장인 '제2회 전라북도 사회적경제박람회 in 전주'가 지난 4일부터 6일 열렸다. 4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양춘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박람회는 이태원 참가와 관련 국가 예도기간에 진행됨에 따라 개막식 진행에 앞서 이태원 참가 회생자들에게 대한 추모 묵념에 이어 엄숙한 분위기에서 공연 등 일부 프로그램은 생략했다. 주요 내빈의 축하 및 환영사, 유공자 포상, 기념 촬영, 참가기업 부스 라운드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도지사 포상은 총 6점으로 민간인 포상 3명, 우수 협동조합 2개소, 사회적가치 창출 우수 사회적기업 1개소가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마을기업 꿈개너루 협동조합(익산시) 김원섭 대표, 사회적기업 삼보정보통신(김제시) 오진균 대표, 자활기업 예다간병인회(전주시) 김옥희 대표가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 협동조합은 새생노인복지센터(전주시)와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전주시), 사회적가치 창출 우수 사회적기업으로는 (주)기초능력개발센터(전주시)가 선정됐다. 이번 박람회



지난 4일 전주 객리단길에서 열린 제2회 전라북도 사회적경제박람회 in 전주에 김관영 도지사과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양춘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박람회 in 전주는 6일까지 진행됐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52개사가 참여했다.

또한 컨퍼런스·토론회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의 당면 현안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사회적경제 4대 부문(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별

(통합)네트워킹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연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도와 중간지원조직의 정책홍보관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박람회 참여가 어려운 방문객들을 위해 실시간 소통 판

매(라이브커머스)도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사회적가치에 공감하고 기업들이 해당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제철제맛 '꿀밤고구마' 판매

'전북생생장터' 최대 50% 할인 기획전  
13일까지, 1인 최대 5박스 구매 가능

전북(도지사 김관영)는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제)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과 함께 제철농산물 관측 '제철제맛' 제5탄으로 '꿀밤고구마' 기획전을 준비했다. 7일부터 13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전북생생장터(freshj.com)에서 판매한다.

'제철제맛'은 숨겨진 고품질 전북 농산물을 발굴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1품목을 선별해 전라북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전북생생장터(freshj.com)에서 한정 기간 판매하는 기획전이다.

이번에 판매하는 '꿀밤고구마'는 김제시 공덕농협이 황토에서 계약재배한 농산물이다. 충분한 숙성으로 당도를 높이고 상처를 스스로 아물게하는 큐어링(curing) 처리를 한 것으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며, 세척된 상태로 배송한다.

5kg, 1.670개 상자를 준비했으며, 가격은 국내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 대비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판매는 선착순으로 전북생생장터(freshj.com)에서만 진행한다.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카드로 결제

제한 10% 추가 청구할인(2만원 이상 구입)을 받을 수 있다. 구매제한은 1인 5박스까지이며, 배송은 무료다.

고구마는 조선시대부터 구황작물로 재배했지만, 최근에는 효능과 맛이 좋아지면서 현대인에게 건강식품으로 지리 잡았다.

또 섬유질과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비타민 A.C.E가 풍부해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특히 다양한 발암물질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과장은 "전북생생장터는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소규모 도내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농축수산물들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며 "도내에서 생산되고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고품질 고구마를 최대 50% 할인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생생장터(freshj.com)와 고객센터(☎1668-1278)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 '지적측량 최고수를 찾아라'

완주삼봉지구서, 지적측량 경진대회 개최... 전주시 '최우수상'

## 전북도 하반기 예비청년마을 만들기 5곳 선정

지역자원 연계·주민과 상생하는 청년 실험의 장... 익산시 2곳·남원·장수·고창 각 1곳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22년 하반기 예비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5개소를 선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예비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해 청년의 지역 탐색· 정착,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공모선정은 지역자원 연계성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익산시 2개소와 남원시, 장수군, 고창군 각 1개소를 선정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소멸기금 1.2억 원, 시군비 0.8억원)으로 1개소당 4천만원씩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10개 청년단체가 응모했다. 1차 서면심사, 현장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5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5개 청년단체는 향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실행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익산시 '문화예술공동체 미담보담 협동조합'은 익산 청년들의 수요를 모아 축제, 행사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는 '영(young) 구하자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각각각'은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를 목표로 청년이 주체가 된 친환경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역주민 대상으로 환경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활용품 및 육실용품 등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제작한다.

남원시 '같이만가치기협동조합'은 우리는 이웃사촌, '같이'의 가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청년마을을 목표로 활동한다.

고창군 '해리포터즈'는 기후위기 청년기록자 양성, 북스테이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을 인문공간 <책마을헤리>와 연계해 청년활동 및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나선다.

장수군 '장수군 청년네트워크 협의회'는 청년부모를 대상으로 청년부

모교육, 육아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을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예비 청년마을로 선정된 5개소는 청년이 주도해 지역활력 도모 및 지역주민들과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통신사업동조합'의 시간여행, '청정지대'의 라이브커머스, '쓰임사 사회적협동조합'의 업사이클링 캠프, '농촌을보고배우다'의 플라마켓, '장수청년산사공'의 청년캠스쿨 운영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경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도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4일 완주군 삼봉지구 일원에서 도내 지적측량 검사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3회 전라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최신 측량 기술 발달에 따라 전자적 장비의 기술력을 습득하고 지적업무 담당자의 현직감, 지적측량 직무심 조사측량 등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통해 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14팀(팀별 3인)은 그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한 성과검사를 위해 측량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등 시·군간 열린 경쟁을 펼쳤다. 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는지와 측량장비 운용 능력, 팀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전주시를 최우수팀으로 선정하고 도지사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최우수팀은 11월에 개최되는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북도 대표로 참가하고 2023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위한 조사측량팀으로 위촉되어 토지경계분쟁 해결을 위해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회 참가자들은 경진대회가 끝난 후 지적측량 검사 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하는 토론회를 통해 업무역량 강화 및 통일된 업무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임으로 앞으로도 지적측량경진대회, 직무교육 등을 통해 시·군 공무원의 지적측량 성과결정(검사)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